

원희룡 장관, “한-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”

- 27일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만나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인프라 협력 강화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(수)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(Saad Sherida Al Kaabi)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·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.

○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(LNG) 거래국인 한-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되었다.

* 한국 LNG 수입국(백만톤, 비중, '22년) : 1위 호주(11.7, 25.1%), 2위 카타르(9.7, 21.0%)
카타르 LNG 수출국(백만톤, 비중, '21년) : 1위 한국(11.6, 15.1%), 2위 인도(10.0, 12.8%)

□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, “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·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·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□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“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,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”라고 화답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”이라면서, “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,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·방산·바이오·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2023. 9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